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Perceived Norm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Resilience

김완기(Wan-Gi Kim)*, 서상혁(Sang-Hyuk Suh)**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실증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

국 문 요 약

창업가적 탄력성은 청년 창업가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이다. 그러나 이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희소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창업가적 탄력성을 포함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청년 창업가 443명으로부터 설문지법을 통해 분석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사회적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창업가적 탄력성은 사회적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단, 표본이 일부 지역, 특정 대학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핵심어 : 창업가적 탄력성, 창업가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범, 창업의도

※ 논문접수일: 2018.7.10, 1차수정일: 2018.8.5, 게재확정일: 2018.8.28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테크노경영학과 박사과정, ygkim@hoseo.edu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테크노경영학과 교수, seo877@hoseo.edu, 교신저자

ABSTRACT

Entrepreneurial resilience is one of the core competencies that young entrepreneurs should own. However, compared to its importance, related studies about this topic are rare, especially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for empirical analysis, included resilience to the research model expanding existing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s of perceived norms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to identify the mediated effects between perceived nor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443 potential young entrepreneurs.

Our experimental result show that social norm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resilience. Moreover, personal nor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resil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intention of entrepreneurial. As a result of the indirect effect, entrepreneurial resili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orm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meaning because it show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resilience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young entrepreneur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relates to the restriction of sample in certain regions and universities.

Key Words : Entrepreneurial Resilienc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erceived Norm, Entrepreneurial Intention

I. 서 론

청년기는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인 동시에(Dayton, 1981), 대학생 시기의 진로개발을 바탕으로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창업가의 3분의 1이 30세 미만이며, 18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상당수의 청년이 대학에서 창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다. 대학들이 았다튀 창업가 정신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쏟았고, 그 결과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담이 늘었다고 보고되었다(Donald, 2013).

국내의 상황을 보면, '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15년 21.9%, '16년 22.1%, '17년 22.7%에 달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 같은 청년의 고용 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일자리의 수요 부진,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누적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의 수가 증가하면 고용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는 더욱 부흥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개 시·도 6,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창업 장애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7.4%가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을, 23.2%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능력 및 경험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해서 17.6%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82.4%는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성공적 창업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인 창업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Chell, 2013) 창업 관련 교육 및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과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핵심적인 창업교육은 핵심 역량의 함양에 두어야 한다.

취업률 관련 통계 수치가 보여 주듯 오늘날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하고, 창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전도가 양양한 창업 기업들도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곤 한다.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무엇보다도 난관을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탄력성(Resilienc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edner et al., 2011). Michaelis et al.(2010)은 탄력성이 있는 개인이 변화를 더욱 잘 수용하고 더욱더 혁신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창업가의 핵심 역량인 창업가적 탄력성을 함양하여(Douglas and Widavsky, 1982), 창업에 따른 역경을 역동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학자들 간에 대두되고 있다(Shepherd, 2003).

본 연구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을 선택하

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창업가적 탄력성 관점에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잠재적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가적 탄력성 및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창업가 정신 관련 연구에 있어서 탄력성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희소하며 국내의 경우 찾아볼 수조차 없다. 창업가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창업가적 탄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란 창업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며, 창업 행동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이다(Ferreira et al., 2012). 창업의도는 사람이 자영업에 실제로 개입하기 전에 인식하는 과정이기에(Linan and Chen, 2009) 창업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창업의도 형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통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Nabi et al., 2017). 계획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행동은 의도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Ajzen, 1991).

Ajzen(1991)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에 기반하여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창업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를 나타낸다. 이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 또는 동의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통제감은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개인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믿고 있을 때는 행동 통제력이 없다고 믿을 때 보다 오히려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업가적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취욕구(McClelland, 1961), 통제소재(Brockhaus, 1982), 위험감수성향(Brockhaus, 1980), 성격특성(Zhao et al., 2005)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과정 중심으로 창업의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특성들이 창업가의 동기 및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창업의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Naffziger et al. (1994)는 창업의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 역시 한 개인의 창업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도를 직접 사업체를 만들고 이끌려는 계속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으로서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요인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창업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규범을 통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기존 창업의도 연구 모형을 확장하여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지각된 규범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개인적 기준 및 준거라 할 수 있다(조영아, 2015). 개인이 지각한 규범은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인지하게 되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의견을 귀담아듣는 사람들 사이에 특정 행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와 관련된 믿음'이라면,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은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특정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인정받는가와 관련된 믿음'이다(Park and Smith, 2007).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된 규범 모두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각된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기대 및 압력을 의미한다(Ajzen, 1985). 주관적 규범은 본 연구의 지각된 규범과 매우 유사하나, 주관적 규범은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각된 규범과 차이가 있다.

창업가 정신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Klyver and Schott, 2008).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습, 가치와 지식은 창업의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Linan et al., 2013). 또한 창업에 대한 지각된 규범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창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가치이다(Linan et al., 2013). 공유된 가치와 규범은 보이지 않게 한 개인의 선택과 실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McKeever et al., 2014). 문화적 가치가 창업을 바람직한 직업으로 받아들일 때 창업가 정신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Linan et al., 2011). 한편 사회가 창업에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에 대한 존중 형태로 나타난다(Begley and Tan, 2001).

개인적인 규범은 더 가까운 주변(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창업을 포함한 자신의 선택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가족, 친구 및 좀 더 가까운 지인들이 주는 조언 및 격려는 행동에 정당성을 제공 하며(Hindle et al., 2009), 창업에 대한 더 좋은 인식의 형성에 이바지 한다(Scherer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규범을 창업과 관련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으로 정의하고,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각된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적 탄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 및 사회적 지지는 탄력성의 중요한 강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Powdthavee, 2014), Rutter(1987)은 탄력성은 가족, 이웃,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Pérez-López et al.(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 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연구한 결과, 탄력성이 창업의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변 인물들, 특히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창업에 대한 기대, 지지들이 청년들의 창업가적 탄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1a: 개인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규범과 창업의도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규범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n Hooft et al.(2004)은 주관적 규범이 성인의 직업탐색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고, Zikic and Saks(2009)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구직자의 구직의도를 높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창업의도 선행연구에서도 Ajzen(2001)은 사회 문화적 가치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Hindle et al.(2009)은 가족,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기대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하였다. Kolvereid(1996)은 사회적 규범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Shapero and Sokol(1982)는 창업이벤트이론을 통해 개인이 창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지각된 사회적 규범이 인지된 바람직성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줌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갯거리족”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청년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창업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부모나 주변인들의 기대와 지지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손영곤·이병관, 2012),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2a: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사회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가장 잘 알려진 선행 변수는 창업가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다(Piperopoulos and Dimov, 2015; Tsai et al., 2016). 자기효능감은 Bandura (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97)에 뿌리를 둔 자기효능감은 다른 개인적 특성보다 창업가의 행동 선택, 지속성 및 효과성을 예측하고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Utsch and Rauch, 2000).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힘이 더 크다. Krueger and Brazeal(1994)는 창업가 자기효능감이 없으면 기업을 활동이 없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다른 사람이나 운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지만,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외부 사건이나 힘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Gibb, 2006).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인내, 계획, 열정, 노력 등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창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hane et al., 2003).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Masten and Coatsworth (1998)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진로탄력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주영·윤경자(2013)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지연·이기학(201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함윤정·김용수(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3: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1998; Jung and Yammarino, 2001; Ahlin et al., 2014). 국내에서도 채연희(2016)는 고용가능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성호(2016)는 창업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태욱(2017)은 대학창업교육에서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4: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가적 탄력성

탄력성(Resilience)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빨리 회복하는 것(Sonace and Stevenson, 2006)으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역경 상황에서 발현되는 인간 기능을 이해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은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탄력성 연구 역시 기업 조직(Riolfi and Savicki, 2003), 교육(Gu and Day, 2007), 지역사회(Brennan, 2008)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의 탄력성 연구의 기원은 Staw et al.(1981)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직원의 탄력성 및 심리적 자본 개발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nnenluecke, 2017).

탄력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와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경우 역경을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극복하는 ‘긍정적 적응’과(Dyer and McGuinness,

1996)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Davydov et al., 2010; Gu and Day, 2007).

창업가적 탄력성(Entrepreneurial Resilience) 연구는 ‘왜 어떤 창업가는 창업이라는 도전적 상황에서도 잘 견디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서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 탄력성은 불안정한 사건, 어려운 시장 및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창업가의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역경으로부터의 극복 능력은 창업가의 핵심 역량으로 연구되었다(Sutcliffe and Vogus, 2003).

London(1993)과 Cooper et al.(2004)은 탄력성 있는 창업가들은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거의 성공을 사용하여 현재의 도전에 맞설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Tugade and Fredrickson,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적 탄력성을 어려운 환경과 힘든 문제들에서도 창업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창업에 도달하며, 지속해서 도약, 성장하는 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arkman and Baron(2003)의 연구는 창업가의 탄력성이 회사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도구라는 점을 밝혀냈고, Hayward et al.(2010)은 창업가의 탄력성과 기업의 성공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Bullough et al.(2014)은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각된 위협에 덜 영향을 받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sher(2011)은 탄력성은 창업의도를 결정하며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창업가의 역량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5: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자들은 하나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 매개변수라고 제시해 왔는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Tsai et al.(2016)은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창업의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성이 태도, 행동 통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다른 변수의 탐지와 관련된 추가 연구를 촉구했다.

박묘정(2018)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이직의도가 낮아짐을 밝히고 있으며, 배계순(2018)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밝혀내서 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창업분야 연구에서 Bullough et al.(2014)는 위험 지역에서의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위험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조절역할을 확인하였으며, Pérez-López et al.(2016)은 극심한 청년 실업률(53.2%)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여, 탄력성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가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적 탄력성이 청년 창업가가 지각한 규범(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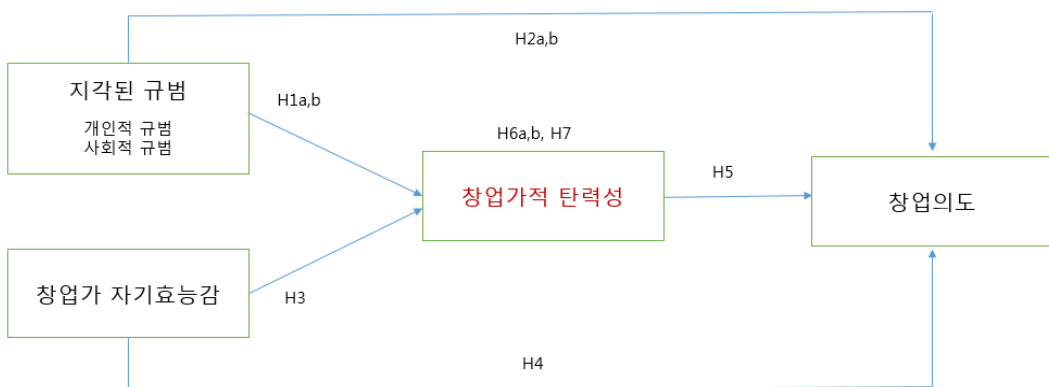
H6a: 창업가적 탄력성은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H6b: 창업가적 탄력성은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H7: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도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창업가적 탄력성이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표 1〉 변수의 정의 및 척도

변수		정의	문항수	문항 출처
지각된규범	개인적규범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의견을 귀담아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각한 창업에 대한 기대, 지지, 압력	3	Linan et al. (2011)
	사회적규범	개인이 속한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지각한 창업에 대한 기대, 지지, 압력	3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6	Wilson et al. (2007)
창업가적 탄력성		어려운 환경과 난관에 부딪혀도 창업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창업에 도달하며, 지속해서 도약, 성장하는 힘	7	Connor and Davidson(2003) Campbell-Sills and Stein(2007)
창업의도		직접 사업체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계속된 과정	6	Linan and Chen (2009)

변수의 정의 및 척도는 〈표 1〉과 같다. 창업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Wilson et al. (2007)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는 창업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과업 기반의 문항이 이해하기 어려워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Wilson et al., 2007). 지각된 규범에 대한 측정 도구는 Linan et al.(2011)가 개발한 Entrepreneurial Intention Questionnaire(EIQ)를 사용했다.

창업가적 탄력성 측정 도구는 Campbell-Sills and Stein(2007)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탄력성 측정 도구 중 하나인 Connor-Davidson Resilience(CD-RISC)을 기반으로 한다. 창업의도 측정 도구는 Linan and Chen(2009)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충청지역 4년제 대학교의 잠재적 청년 창업가이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자료 수집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충청권의 1개 대학의 3~4학년 이상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470부 중 450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미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13	70.7
	여	130	29.3
연령	20대	380	85.8
	30대	63	14.2
주거지	서울·경기지역	319	72.0
	대전·충청지역	124	28.0
창업 관련 경험	창업 강좌 수강 경험	331	74.7
	창업 관련 상담 경험	81	18.3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60	13.5
	창업자금 지원사업 참여 경험	52	11.7

자료 분석은 기초자료 분석과 연구문제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기초자료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정리했다. 표를 통해 보듯 창업 강좌 수강 경험자는 74.7%이다.

IV. 실증 분석

1.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

맥스(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의 값이 0.927($p < .000$)로 매우 높게 나타나 획득한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66.96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의 검증 과정에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표 3〉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신뢰도(α)
창업가적 탄력성	A-6	.763					.899
	A-7	.747					
	A-1	.730					
	A-4	.723					
	A-3	.709					
	A-2	.676					
	A-5	.651					
창업의도	B-5		.797				.923
	B-6		.760				
	B-4		.745				
	B-2		.745				
	B-3		.713				
	B-1		.671				
창업가 자기효능감	C-2			.730			.877
	C-1			.716			
	C-4			.715			
	C-3			.625			
	C-6			.608			
	C-5			.608			
지각된 규범	개인적 규범	D-2			.804		.805
		D-3			.795		
		D-1			.694		
	사회적 규범	E-3				.788	.675
		E-1				.774	
		E-2				.661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9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9103.302 (df = 528), $p = .000$

2. 인과 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을 하였다. PROCESS macro는 기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분석기법이다.

기존의 분석 방법이 실제 매개효과와 크기에 따른 검증이 아닌 세 번의 회귀분석을 통한 추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 방법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에 반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Hayes(2013)가 고안한 76개 연구모델 중 4번에 해당하는 모델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표 4〉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가적 탄력성 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가설	경로	B	SE	t값	LLCI	ULCI
H1a	개인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0474	.0335	1.4135	-.0185	.1133
H1b	사회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0802	.0311	2.5775**	.0191	.1414
H3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가적 탄력성	.6650	.0404	16.4735***	.5856	.7443

R²=.4874 F=139.1550 (p=.0000), **p<.05, ***p<.001

〈표 4〉에 보듯이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가 지각하는 창업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가 클수록 청년 창업가의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1b은 지지 되었다. 또한,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는 지지 되었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적 탄력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보듯이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창업 가치를 인정받을 때 창업의도가 증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2a는 지지 되었다. 또한, 청년 창업가의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4는 지지되었다. 또한,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의 탄력성이 클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5는 지지 되었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가의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가적 탄력성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가설	경로	B	SE	t값	LLCI	ULCI
H2a	개인적 규범 → 창업의도	.2254	.0397	5.6711***	.1473	.3035
H2b	사회적 규범 → 창업의도	.0724	.0371	1.9524	-.0005	.1454
H4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5141	.0607	8.4642***	.3947	.6335
H5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3488	.0565	6.1793***	.2379	.4598

R²=.5629 F=141.0121 (p=.0000), **p<.05, ***p<.001

3. 간접효과 분석

청년 창업가의 창업가적 탄력성이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추정치가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분석한 결과를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규범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0280)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은 .0080, 상한 값(ULCI)은 .0617로 이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양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표 6〉 창업가적 탄력성의 간접효과 분석결과

가설	효과	경로	Effect	SE	LLCI	ULCI
H6a	Total	개인적 규범 → 창업의도	.2420	.0413	.1608	.3231
	Direct	개인적 규범 → 창업의도	.2254	.0397	.1473	.3035
	Indirect	개인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0165	.0127	-.0050	.0459
H6b	Total	사회적 규범 → 창업의도	.1004	.0384	.0251	.1758
	Direct	사회적 규범 → 창업의도	.0724	.0371	-.0005	.1454
	Indirect	사회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0280	.0131	.0080	.0617
H7	Total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7461	.0497	.6483	.8438
	Direct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5141	.0607	.3947	.6335
	Indirect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2320	.0664	.1076	.3661

나타났다. 이는 창업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가 크다고 지각한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가적 탄력성의 강화를 통해 창업의도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가설 H6b는 지지되었다.

창업가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 (.2320)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은 .1076, 상한 값(ULCI)은 .3661로 이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의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잠재적 창업가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강화를 통해 창업의도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가설 H7은 지지 되었다. 개인적 규범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0165)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은 -.0165, 상한 값(ULCI)은 .0459로 이 사이에 0이 포함되어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6a는 기각되었다.

4. 가설 검증결과

〈표 7〉 가설검증 결과

연구 가설		검증 결과
H1a	개인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1b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2a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2b	사회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3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4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5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6a	창업가적 탄력성은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	×
H6b	창업가적 탄력성은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	○
H7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	○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창업가적 탄력성이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가 지각하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Rutter, 1987; Masten and Coatsworth, 1998). 그렇지만 창업가가 지각한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적 탄력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가가 자신의 가까운 이들로부터 지각하는 창업에 대한 지지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Ahlin et al., 2014; Hayward et al., 2010). 그러나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지만,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도 관계에서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érez-López et al.(2016)의 연구 결과, 즉 탄력성이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국내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 실업대란 등으로 인해 창업이 유력한 정책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로 탄력성이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간에 긍정적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규범에 속하는 가까운 주변인, 즉 가족, 친구 등의 창업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규범과는 다르게 탄력성이 긍정적 매개역할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공공적 관점과 사적인 관점이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대치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창업가적 탄력성을 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하여 교육,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연구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었으나, 경영학 특히 창업가 정신 연구 분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규범이라는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창업의도를 주관적 규범 즉, 개인적 수준에 국한되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 및 사회적 수준 모두를 포함한 지각된 규범 변수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창업가적 탄력성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여,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창업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Ajzen(1991)은 동기적 변수를 사용하여 의도를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경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연구를 촉구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핵심 역량으로서 창업가적 탄력성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탄력성은 잠재적 청년 창업가에게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오뎅이처럼’ 다시 뛰어올라 성공적 창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창업가의 핵심 역량이다. 창업이라는 무수한 실패가 점철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이나 환경이 우수하다고 해도 이른바 오뎅이 정신, 즉 탄력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창업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 또는 창업 관련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창업가들이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높은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창업의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가가 자기효능감이 부족하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의도나 실천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성공적 창업을 달성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창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로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창업가들이 지각하는 개인적·사회적 규범이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특정 지역 2곳과 특정 대학 3곳의 학부,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가 청년 창업가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포괄적인 조사 표본을 갖춘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태도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가적 탄력성과 관련한 실증 연구가 지속해서 축적될 필요가 있다. 탄력성이 창업가의 핵심 역량이며,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창업의 실패에 따른 재창업 도전 관련 연구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이 추가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청년 일자리 대책”, 2018. 3. 15. 발표자료.
- 김지연·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25.
- 박묘정 (201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호 (2016), “창업환경과 창업 자기효능감 및 경제적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계순 (2018),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영곤·이병관 (2012),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56(6): 127-162.
- 안태욱 (2017),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주영·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13-130.
- 조영아 (201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7년 창업인식 실태조사」, 대전 : 창업진흥원.
- 채연희 (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와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함윤정·김용수 (2015),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235-251.
- Abebe, M. A. (2012), “Social and Institutional Predictors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vidence from Hispanic Adults in the U.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20(1): 1-23.
- Ahlin, B., Drnovšek, M. and Hisrich, R. D. (2014), “Entrepreneurs’ Creativity and Firm Innovati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mall Business Economics*, 43(1): 101-117.

- Ahlin, B., Drnovšek, M. and Hisrich, R. (2014),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Absorptive Capac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s and Innovation", *Journal for East European Management Studies*, 19(2): 213-235.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Action Control*, Berlin and New York: Springer, 11-3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27-58.
- Bandura, A. (199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gley, T. M. and Tan, W. L. (2001),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a Comparison between East-Asia and Anglo-Saxon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3): 537-553.
- Brennan, M. A. (2008), "Conceptualizing Resiliency: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for Community and Youth Development", *Child Care Practice*, 14: 55-64.
- Brockhaus, R. H. (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 Brockhaus,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39-57.
- Bullough, A., Renko, M. and Myatt, T. (2014), "Danger Zone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Self-Efficacy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3): 449-712.
- Campbell-Sills, L. and Stein, M. B. (2007), "Psychometric Analysis and Refinement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Validation of a 10-Item Measure of Resili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6): 1019-1028.
- Chell, E. (2013), "Review of Skill and the Entrepreneurial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19(1): 6-31.
- Chen, C. C., Greene, P. G. and Crick, A. (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16.
- Connor, K. M. and Davidson, R. T.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 76-82.
- Cooper, N., Estes, C. A. and Allen, L. (2004), “Bouncing back”, *Parks & Recreation*, 39(4): 28-35.
- Davydov, D. M., Stewart, R., Ritchie, K. and Chaudieu, I. (2010),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5): 479-495.
- Dayton, C. W. (1981),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4): 321.
- Donald, F. K. (2013),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Douglas, M. and Wi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yer, J. G. and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r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 276-282.
- Ferreira, J. J., Raposo, M. L., Rodrigues, G. R., Dinis, A. and Do Paço, A. (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440.
- Fisher, R. (2011), “Passion, Resilience, Obsession & Sustained Entrepreneurial Action: the Path to Entrepreneurial Success”,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Gibb, A. A. (2006), “Entrepreneurship: Unique Solutions for Unique Environments. Is It Possible to Achieve This with the Existing Paradig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World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 Gu, Q. and Day, C. (2007),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8): 1302-1316.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ayward, M. L. A., Forster, W. R., Sarasvathy, S. D. and Fredrickson, B. L. (2010), “Beyond Hubris: How Highly Confident Entrepreneurs Rebound to Venture Agai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6): 569-578.
- Hedner, T., Abouzeedan, A. and Klostén, M. (2011), *Entrepreneurial resilience Annals*

-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2(1): 7986.
- Hindle, K., Klyver, K. and Jennings, D. F. (2009), "An 'Informed' Intent Model: Incorporating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Gender Variables into the Theoretical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New York: Springer, 35-50.
- Jung, D. I. and Yammarino, F. J. (2001), "Perception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mong Asian Americans and Caucasian Americans: a Level of Analysis Perspective",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8(1): 3-21.
- Klyver, K. and Schott, T. (2008), "Who Will Develop Entrepreneurial Intentions? How Social Network Structure Shap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sented at the 2008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World Conference*, 22-25.
- Krueger, N. F. and Brazeal, D. V.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olvereid, L. (1996), "Prediction of Employment Status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1(1): 47-57.
- Linan, F. and Chen, Y. W. (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inan, F., Nabi, G. and Krueger, N. (2013), "British and Spanish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Comparative Study", *Revista De Economía Mundial*, 33: 73-103.
- Linan, F., Santos, F. J. and Fernandez, J. (2011),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n Potential Entrepreneur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3): 373-390.
- Linan, F., Urbano, D. and Guerrero, M. (2011),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 Linnenluecke, M. K. (2017), "Resilience in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Influential Publications and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9(1): 4-30.
- London, M. (1993),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66(1):

55-69.

- Markman, G. D. and Baron, R. A. (2003), "Person-Entrepreneurship Fit: Why Some People Are More Successful as Entrepreneurs than Oth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81-301.
- Masten, A. S. and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ement Society*, Princeton, N. J., Von Nostrand.
- McKeever, E., Anderson, A. and Jack, S. (2014), "Entrepreneurship and Mutuality: Social Capital in Processes and Practice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6(5-6): 453-477.
- Michaelis, B., Stegmaier, R. and Sonntag, K. (2010), "Shedding light on followers' innovation implementation behavior",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4): 408-429.
- Nabi, G., Liñán, F., Fayolle, A., Krueger, N. F. and Walmsley, A. (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6(2): 277-299.
- Naffziger, D. W., Hornsby, J. S. and Kuratko, D. F. (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3.
- Park, H. S. and Smith, S. W. (2007), "Distinctiveness and Influence of Subjective Norms, Personal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and Societal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on Behavioral Intent: a Case of Two Behaviors Critical to Organ Don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194-218.
- Pérez-López, M. C., González-López, M. J. and Rodríguez-Ariza, L. (2016), "Competencies for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Option in a Challenging Employment Environment",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1(3): 214-229.
- Piperopoulos, P. and Dimov, D. (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985.
- Powdthavee, N. (2014), "What Childhood Characteristics Predict Psychological Resilience to Economic Shocks in Adulthoo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5(December): 84-101.

- Riulli, L. and Savicki, V. (2003), "Information System Organisational Resilience", *Omeg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31: 227-233.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 Scherer, R. F., Brodzinsky, J. D. and Wiebe, F. A. (1991),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3: 195-206.
- Shane, S., Locke, E. A. and Collins, C. J. (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hapiro, A. and Sokol, 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8.
- Sonace, C. and Stevenson, A. (2006),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2nd ed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taw, B. M., Sandelands, L. E. and Dutton, J. E. (1981), "Threat Rigidity Effects in Organizational: a Multi Leve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Review Quarterly*, 26(4): 501-52.
- Sutcliffe, K. M. and Vogus, T. J. (2003), "Organizing for Resilience",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s of a New Discipline*, 94-110.
- Tsai, K. H., Chang, H. C. and Peng, C. Y. (2016), "Extending the Link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2): 445-463.
- Tugade, M. M. and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Utsch, A. and Rauch, A. (2000), "Innovativeness and Initiative as Mediators between Achievement Orientation and Venture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1): 45-62.
- Van Hooft, E. A. J., Born, M. P., Taris, T. W., Van der Flier, H. and Blonk, R. W. B. (2004), "Predictors of Job Search Behavior among Employed and Unemployed People",

Personnel Psychology, 57: 25-59.

Wilson, F., Kickul, J. and Marlino, D.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1(3): 387-406.

Zhao, H., Seibert, S. E. and Hills, G. E.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Zikic, J. and Saks, A. M. (2009), "Job Search and Social Cognitive Theory: The Role of Career-Relevant Activi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 117-127.

김완기

호서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관심 분야는 청년창업, 창업가정신, 지식사업화이다.

서상혁

1989년 3월 프랑스 Grenoble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다년간 정책연구단장, 연구위원을 역임하면서 기술기획 및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연구하였다. 사회 활동으로는 한국기술혁신학회의 학회장, 기업 기술가치 평가협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대학원 테크노경영학과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이테크 마케팅과 정보마케팅, 성과분석과 기술마케팅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